

# 장성 농촌이 젊어지고 있다

### 군, 도시민 적극 지원에 '귀농 일번지' 부상

### 작년에만 468명 유입... 지역사회 주역 성장

장성군이 활발한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 '귀농 일번지'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763명(362가구)이 귀농·귀촌했다.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468명이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22가구 43명이 새로 귀농하는 등 귀농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장성은 대도시 접근성과 함께 자연환경과 교통, 군에서 지원하는 귀농 정착사업 등이 매력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군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상담과 정착에 따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3개 부서에서 추진하던 귀농 업무를 지난해부터 통합,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귀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장성 미래농업대학'에 귀농인 학과를 신설했으며, 기존의 새내기 영농체험농장을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1박 2일 체험교육 등도 운영한다. 지난해 귀농·귀촌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85% 이상이 거주지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5년 이내 농가소득 예상액 3000만원 이상 증가가 51%라고 조사됐다. 군은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내 농

업인회관에서 귀농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 귀농인협의회'를 창립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승인 및 임원선임 등이 이뤄졌으며, 양동철 추진위원장이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귀농인 협의회는 앞으로 장성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상담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간의 귀농에 따른 농업기술과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하는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양동철 협의회장은 "장성은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 대도시와의 접근성 등으로 귀농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곳이다"며 "앞으로 우리 귀농인들이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운무에 뒤덮인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

지난 17일 영암 월출산(높이 809m)이 강바에 내린 눈과 운무에 뒤덮여 한 폭의 그림같은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월출산은 지난 1988년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영암군 제공)

## 친구들 고민은 친구가 해결해요

### 나주교육청, 또래 상담사 양성... 학교폭력 예방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기평)이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같은 또래 학생을 상담사로 양성하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최근 1박2일간 다시중 도서관에서 영산포 여자중과 와 다시중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아피야피 또래상담반'(이하 또래 상담반) 예비교실을 운영했다. '아피'는 '친한 친구'의 순우리말이다. '또래상담반'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나주교육지원청의 Wee센터

가 전담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먼저 다가 친구가 되어주는 프렌드십(Friendship),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대화하는 카운셀러십(Counselorship), 자기리더십과 공동체 리더십 배양 및 학생들끼리 고민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학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또래상담반'을 적극 양성, 또래 상담자들이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학생 스스로 자아를 성장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 ■ 새얼굴

### “한우·표고버섯 친환경 단지 조성”

### 강경일 장흥정남진농협 조합장

“농협과 조합원간에 상생전략을 수립해 '고온 농협, 꼭 필요한 농협'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강경일(55) 장흥정남진농협 조합장은 “지역 특산물인 한우와 표고버섯에 대한 친환경 단지를 조성 조합원의 고부가가치 소득사업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남로 여성 조합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이사, 감사

등 여성 조합원들에게 조합에 대한 경이회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학수사대 현철호 검사관은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화순군 운영 인터넷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 ‘파머리아’ 작년 매출 25억

화순군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화순 파머리아'가 지난 한해 동안 25억 5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화순 파머리아'를 통해 ▲파프리카 13억1200만원 ▲복숭아 3억 9400만원 ▲버섯2억2300만원 ▲토마토 1억8600만원 등 총 12개 품목 25억5000만원 어치가 판매됐

다. '화순 파머리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군이 직접 운영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쇼핑몰로 673 생산농가가 등록돼 있고, 4335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도시 소비자에게 다



가갈 수 있도록 농·특산물 구입시 소비자와 생산농가에서 부담하는 택배비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오는 23~26일 사흘간 서울 메트로(청담역)에서 화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를 개최한다. /중부취재본부=조승수기자 css@

## 전 북

## “익산 역사유적 유네스코 등재 추진 고도 백제 유산가치 최대한 살려야”

### 워크숍서 전문가들 주장

익산시가 익산 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등재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지역이 지닌 세계유산적인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이화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책임 연구원은 지난 17일 익산 공공 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워크숍에서 “앞으로 공주, 부여와의 통합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익산 역사유적이 지닌 그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권 전통문화대 교수 역시 “이번 작업은 과거의 세계유산 등재와는 차원이 다른 성격으로 새로운 도전”이라고 들고 “익산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 교수는 “공주·부여·익산 등 3개 도시를 함께 묶어 등재를 추진하는 방식은 전례가 없는 만큼 앞으로 유산 신청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완규 익산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장은 “등재작업은 단순히 익산지역의 백제왕도 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익산을 ‘품격있는 역사문화도시’로 가꿔 미래지향적 창조도시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역설했다. 이번 워크숍은 익산 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 전북도가 주최하고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주관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산악구조대의 동계 훈련

(사)지리산 북부 산악구조대는 최근 제주도 한라산 일원에서 동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전국 16개 시·도 산악구조대가 참가해 산악 구조대의 구조능력을 배양했다. (지리산 북부 산악구조대 제공)

## KTX 정읍역사 신축 재검토 논란 장기화

# “지하차도 개설”... 총선 이슈 부상

### 예비후보들 ‘원안대로 추진’ 민심 끌어안기

한국철도시설공단(KTX) 정읍역사 신축 재검토 논란이 지역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4·11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간 날선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당초 2009년 KTX 개통(2014년)에 맞춰 정읍 선상역사 신축에 521억원, 지하차도 개설에 129억원을 투입기로 했으나 최근 신축대상 현 역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이에 신축계획이 백지화될 처지에 놓이자 정읍시는 물론 전북도 전체가

한목소리로 국토 균형발전과 호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당초 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읍시는 “서해안 7개 시·군의 교통 중심지로 2014년 KTX 개통 후 집결지 관공역 편의와 광역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새 역사와 지하차도 개설이 꼭 필요하다”며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민간 차원의 범시민대책위원회도 발족돼 서명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공단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오는 4월까지 역

사 규모를 조정하고 연말까지 보완설계를 통해 사업실시 계획을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KTX 역사 재검토는 4·11 총선을 맞아 자연스럽게 정읍지역의 핵심이슈로 등장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역사 신축을 원안대로 추진하려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돼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하면서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철도공단과 정읍시의 이견으로 촉발된 'KTX 정읍역사 신축' 논란이 정읍 지역 총선의 이슈로 급부상, 어느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is@

## 상반기 공공요금 모두 동결

### 도내 14개 시군 결정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 17일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 공공요금을 모두 동결하는 것을 뼈대로 한 '물가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선언문'을 채택했다. 동결되는 공공요금은 도시가스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상·하수도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 봉투료 등 도와 시·군이 결정하는 8종이다. 이와 함께 신선 채소류나 개인 서비스 요금은 행정지도 등을 통

해 인상을 억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물가안정을 위한 건전한 소비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시기 분산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성수 도 민생일자리 본부장은 “경기침체와 물가불안이 장기화하는 만큼 우선 공공요금을 상반기까지 동결해 서민경제에 보탬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뉴스 브리핑

### 전북경찰 '법곤충 감식현장 매뉴얼' 발간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는 국내 최초로 '법곤충 감식 현장 매뉴얼'을 발간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년간 연구와 실험 끝에 사건 현장에서 곤충을 이용해 시신의 사망시간, 원인, 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발간했다. 과학수사대는 지난 2009년부터 계절별로 돼지 시체에 생겨나

는 곤충과 파리종을 실험하고 곤충의 발육상태에 따른 사망시간을 연구하는 등 3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 과학수사대 현철호 검사관은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대위마을 주말달밭 분양

군산시 회현면(면장 이만구)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회현면 고사리 대위마을에 있는 주말달밭(1490㎡)을 분양한다. 분양가격은 1구좌(농지 7평 기준)에 3만원이다. 분양 신청은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현면사무소 산업계(063-466-5151·팩스

063-450-4083)로 하면 된다. 회현면 주말농장은 농사경험이 없는 도시민들도 쉽게 영농체함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밭효원 퇴비를 시비하고 밭갈이 한 후 정지작업까지 마친 파종 직전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현면사무소 산업계(063-466-5151·팩스

### KDI, 김제 민간육종 연구단지 타당성 재조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사단은 지난 17일 김제를 방문해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실사단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 내용, 김제시의 향후 발전전략과

사업배경 및 필요성·지역여건과 지원대책, 김제시의 추진의지·사업투자계획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백산면 사업대상지를 둘러봤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빠르면 6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 남원시 청년 취업 희망자 80명 공개 모집

남원시는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취업 2000' 사업 일환으로 취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남원시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이며, 80명을 공개 모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참여기업 20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면접을 통과한 취업희망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수습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